

중진출기업 생산 현장을 가다
기아자동차 엔청공장 (상)

農都 엔청시 공업도시로 바꿨다

중국 상하이에서 장쑤성(江蘇省) 엔청시(鹽城市) 동평위예다치차(東風悅達汽車)유한공사까지는 꼬박 4시간 버스로부터 구박을 받아야 한다.

엔청시는 전형적인 농도(農都)다. 인구는 70만명에 불과하지만, 오지랖은 강원도 면적에 가깝다. 도심을 들어가도 시 청사 외에는 상하이처럼 40, 50층짜리의 높은 건물은 구경하기 힘들다.

이 엔청시에서 기아자동차와 중국 정부·기업이 합작투자한 위예다치차는 단연 '넘버 원'이다. 'KIA'가 새겨진 제복을 입고 거리를 나서면 여성

년 11만대 생산...엔청시 稅收 75% 채워 '넘버 원' 대접
3,000여명에 일자리...올 10월 45만평 규모 2공장 완공

들의 추파가 넘치고, 기관·단체에 들어가도 '척사대접'을 받을 정도다.

그도 그럴것이 위예다치차는 지난 2000년 유한공사를 설립한 이후 불과 6년만인 지난해 11만5천9대의 자동차를 판매, 중국에 팔려든 50여개의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가운데 12위를 차지해 엔청시를 중국 전역에 알렸다.

또, 고교 졸업후 부랑아 신세를 면

치 못했던 3천여명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부모들의 시름을 덜어줬을 뿐 아니라, 엔청시 세수의 75%를 위예다치차가 채워주고 있어 '별면 날아갈새라'의 대접을 받고 있다. 2공장 부지 무료제공, 기반시설 무상지원 등 엔청시가 제공한 혜택을 (본보 지난달 29일자)은 더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농도(農都) 엔청시를 공업도시로 바꿔놓은 위예다치차는 올해 새로운

과외도 날로 세지고 있다. 10여개의 부품업체가 한국에서 엔청시로 옮겨가는가 하면, 한국식당도 6개소로 늘었다. 현재 엔청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150여명.

공장 인근에서 '한국관'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출신의 박주연(46)씨는 "위예다치차 하면 엔청시 뿐 아니라 장쑤성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며 "민장국·김치찌개를 주 메뉴로 하는 한국음식집도 중국인들이 80~90%를 차지할 만큼 대인기"라고 활짝 웃었다.

농도(農都) 엔청시를 공업도시로 바꿔놓은 위예다치차는 올해 새로운



중국 엔청시에 있는 12만6천평 규모의 동평위예다치차유한공사 전경. 지난해 11만5천대를 판매해 중국내 12위에 그쳤으나, 오는 10월 2공장이 준공되면 연산 30만대로 5위권에 올라설 전망이다. /중국 엔청=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시장의 적전지로 불리는 중국에서 위예다치차의 위상은 갈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41만대를 판 상해GM이 1위를 고수하고 있고, 29만대를 판매한 북경현대도 5위에 머물고 있다.

김용만(52) 위예다치차 부총경리는 "2000년 2천400대에서 지난해 11만5천대를 판매, 급신장하는 추세"라며 "오는 10월 45만평 규모의 2공장이 완공되면 연산 30만대로 늘어나 중국내 5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예다치차는 중국내 표준공장 모델을 지향, 2공장 차체공정 분야에 220대의 로봇을 투입해 현재 시간당 28대 수준의 생산성을 35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엔청=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자영업자 64% "작년 매출 감소"

소비심리 위축 탓

작년 한해 서울지역 자영업자의 60% 이상이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창업전문지 월간 B&F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내 6개 중심상권의 자영업자 957명을 상대로 '2006년 자영업자 매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6%가 '작년 매출이 2005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변동이 없었다'는 대답이 26.0%로 뒤를 이었고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10.4%에 그쳤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 그 폭에 대해서는 '30~40% 감소했다'는 대답이 40.4%였으며 '20% 감소'(17.7%),

'30% 감소'(15.3%), '10% 감소'와 '40% 이상 감소'(각각 13.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매출 예상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7.1%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 봤으며 '변동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24.8%,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18.1%였다.

주된 경영예로 원인으로 '소비위축'(72.7%), '과잉진입'(10.7%), '대형매장 개장'(5.0%), '자금 부족'(3.8%) 등이 지적됐다.

이 밖에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경기부양'(76.5%), '자금지원'(7.8%), '공급과잉해소'(5.0%), '컨설팅 교육'(3.1%), '정보화'(2.5%)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소비자 물가 1%대 안정세

전세 상승률 2.0%...2년 7개월만에 최고

석유류와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힘입어 연초 소비자물가가 뚜렷한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집세의 경우 통계상 전세 상승분이 후행적으로 반영돼 2년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을 기록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2.8(2005년 100)로 직적월인 작년 12월보다 0.2%, 전년동월대비로는 1.7% 각각 올랐다.

물가지수 전년동기비가 1%대로 집계된 것은 지난 2000년 5월 1.1%

이후 6년8개월만이다. 특히 석유류와 농축산물이 각각 3%, 0.8% 떨어져 물가 안정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서비스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은 0.3% 올랐다.

전세의 경우 가격 상승이 통계에 뒤늦게 반영되면서 각각 전년동월과 비교해 1.5%, 2.0% 상승했다. 이같은 집세와 전세 상승률은 각각 2004년 6월 1.6%, 2004년 7월 2.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활물가지수 역시 작년 1월에 비



해 1.9% 오르는데 그쳐 지난해 12월의 상승률 2.6% 보다 낮아졌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는 작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각각 2.1%, 0.2%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는 작년 12월보다는 1.7% 올랐으나 전년동월비로는 오히려 1.6% 떨어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대·기아차 외국인 인재 공채

글로벌 자동차 도약위해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 발돋움하기 위해 외국 인력 유치를 힘쓰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최근 자사 채용 홈페이지(recruit.hyundai-kiamotors.com/foreigner)를 통해 해외영업을 비롯한 6개 분야 업무에 대한 외국인 채용공고를 냈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인재의 대량 유출에 유학한 한국인들을 적극 유치해왔지만, 이같이 외국인만을 별도로 공채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사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내달 5일까지 현대·기아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되며, 서류심사, 인터뷰,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해외시장 개척단 요원 모집합니다

광주·전남 중기청 4일까지

광주·전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센터장 장순호 청장)는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상담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단 요원을 오는 4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및 접수는 4일까지 해외시장 개척단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재비를 지원한다. 또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기업활동 상황 제품 소개 등을 담은 홍보 동영상 CD를 무료로 제작 지원한다.

국내교육은 26일부터 3주간 무역실무에 관한 실습이 되며, 3월중 6개월간 희망국가에 파견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는 4일까지 해외시장 개척단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정병춘 광주 국제청장 '따뜻한 세정' 순회 점검



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거리·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정병춘 광주지방국제청장이 지난달 31일 순천·여수세무서를 시작으로 1일 나주·해남·목포세무서 방문 등 일선 세무서 순회방문에 나섰다.

정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일선 세무서

방문일정은 ▲5일=정읍세무서 ▲6일=전주·남원세무서 ▲8일=익산·군산세무서 ▲9일=서광주·광주세무서.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1월 수출액 282억 3,000만달러

철강·선박 큰 폭 증가 작년 보다 21% 성장

1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철강·선박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작년 동기대비 20%가 넘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

액은 282억3천만 달러로, 작년 1월보다 21.4% 증가했다. 수입 역시 21.5% 증가한 280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흑자 규모는 2억1천만 달러로 작년 1월(2억 달러)보다 1천만 달러 가량 증가했다.

조업일수의 영향을 생략한 일평균 수출액도 11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13.8% 증가했고 일평균 수

입액은 13.9% 늘어난 11억7천만 달러였다. 품목별로는 주력인 반도체(15.9%)와 자동차(12.5%)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동차부품(36.4%), 선박(77.3%), 철강(48.2%), 석유화학(19.5%) 등도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입은 금속과 광물, 석유화학제품 등 원자재 수입이 15.8% 늘어난 것을 비롯해 정밀기계와 화학기계 등 자본재(15.4%), 농수산물 등 소비재(16.4%) 등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